다산포럼

벽오동 심은 뜻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많은 분들이 음유시인이자 가수인 김도향을 좋아한다. 특히 그가 부른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는 노래를 잘 기억한다. 그의 노래는 경박하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으면서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폐부를 찔러 오는 풍자가 압권이다. 삶의 철학이나 비판적인 상상력을 은밀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 노래는 원래 그가 '투 코리언스'라는 팀으로 활동할 때 발표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의 엄혹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용케 살아남았고,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70년대의 산물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전통 시가에서 기원한 것이다. 많은 시인이나 묵객들이 자주 언급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벽오동 담론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봉황을 보고 싶은 욕망의 보편성, 즉 누구나 태평성대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이었다. 이 노래가 발표되기 전인 1964년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최은희·신영균 주연으로 만들어진 바가 있었다. 이 영화는 암행어사인 아버지와 의적이었던 아들 간의 운명적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 당대 일급 배우들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벽오동 담론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여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지 못한 듯하다.

벽오동은 오동과는 다른 종류의 나무이다. 오동은 빨리 자라고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자녀 혼사를 준비하기 위해 또는 동네 축제를 위해 심었던 나무이다. 벽오동은 이에 비해 실용적 쓸모는 뒤지지만 상징의 세계에서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나무이다. 누구나 오기를 고대하는 태평성대의 상징이 용이나 호랑이가 아닌 봉황인 것이 흥미롭다. 용의 상서로움이나 호랑이의 용맹과는 달리 봉황은 그 자체가 음양의 공존과 조화를 나타낸다. 용이나 호랑이는 혼자 있지만, 봉황은 늘 둘이 함께 있다. 봉황의 눈에는 살기가 없고 자비로움이 서려 있다. 부처님의 눈이다. 늘어뜨린 꼬리는 고귀한 품격을 보여준다. 봉황은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고 날개와 꼬리로 상생의 춤을 춘다.

벽오동 담론이 주는 교훈은 현실이 언제나 그런 꿈이나 기대를 배반한다는 점을 깨우쳐 준다는 점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봉황,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상황에서 벽오동을 심은 주체가 취하는 태도는 자조적 체념이고, 그것의 상징은 허공에 걸린 명월이다. 병와가곡집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를 송강 정철은 한시 '번곡제하당벽오'(飜曲題夏堂碧梧)로 번역하였고, 조선 후기의 서예가 마성린(馬星麟)도 이를 한시로 번역했다.

이 시가의 다른 버전, 즉 이세보(李世輔)가 지은 박씨본(朴氏本)에는 봉황은 오지 않고 오작(烏鵲)만 날아드니 이들을 모두 날려 보내라는 표현이 있다. 자조적 체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두 가지 버전 모두 벽오동을 심은 주체는 엘리트 사족들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행동양식이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도향은 한발 더 나아가 차라리 하늘에 있는 뭇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를 노래했다.

봉황 전설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봉지가 있다. 이들이 날아와 목을 축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연못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지 옆에 죽전을 특별히 조성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전설의 새 봉황은 벽오동에 집을 짓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따라서 봉황을 오게 하려면 벽오동만 심어서는 안되고 인근에 대나무 숲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그것은 누락되었을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벽오동을 심듯이 투표를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한국전쟁 유족들이나 인권 침해의 피해 생존자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벽오동을 심었고 나아가 대나무 숲도 조성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시가나 김도향의 노래와는 달리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현실이 희망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는 계절이다.

기 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오늘은 하루 종일 사또(전라병사)가 관청 앞에 있는 마당과 장터의 풀을 뽑아 청소하라고 시켰다…."

1653년 스페르베르호의 좌초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된 헨드릭 하멜과 그 일행이 13년간 조선에 머무르며 그때의 일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의 일부다. 이 표류기는 당시 하멜이 자신을 고용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13년간 억류되면서 각종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기록한 것이다. 하멜 일행은 '풀 뽑기'를 대단한 중노동으로 여긴 듯하다. 당시 전라병사 유병익의 지시로 관청 뜰의 풀을 뽑고 있는 하멜 일행을 그린 그림이 166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간행된 스티히터 판본에 실린 목판화 여덟 장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을 정도다.

한데 산림 사업의 풀베기는 집안의 풀 뽑기보다 더 큰 중노동이다. 봄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잡목과 관목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때 강한 햇볕에 노출되기 일쑤여서 '봄볕에 그을리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름에 그늘도 없는 산에서 뙤약볕에 하는 풀베기는 훨씬 힘이 든다. 벌이나 뱀을 조심해야 하고 예취기(刈取機) 등 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 가장 힘이 드는 육림(育林)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풀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여서 자칫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주변 영양분까지 흡수해 버리니 여름에 할 수밖에 없다.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일을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일사병 예방을 위해 작업을 피하기도 하지만 풀베기는 역시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조림지 보호를 위해 조림 후 5년까지는 풀베기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조림 후 20년까지는 임지 여건에 맞게 덩굴류 제거와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 계속되는 육림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성공적인 조림지를 만들 수 있다.

전남에 있는 장성 편백숲 등이 조림 성공지로 평가받고 많은 국민들이 찾는 울창한 숲으로 조성된 것은 이러한 조림뿐만 아니라 꾸준한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간벌 등 육림 사업의 어려운 과정이 모두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녹화 선진국이 된 것도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들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식목일을 맞아 전국에서 나무 심기가 한창이다. 많은 국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산림의 자원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심어진 나무를 가꾸어 주고 산불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은 더 중요하다. 풀베기나 육림 작업을 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조림목이 거의 남지 않기도 하고 잘 가꾸어진 숲도 산불로 인해 피해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울창한 숲은 토사의 유출·붕괴를 막고 낙석·산사태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자연 경관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면서 산림 휴양 장소를 제공해 국민들의 급증하는 야외 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은 동식물 서식 보호 장소로서 종의 보존 기능과 더불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 준다. 또한 오염된 대기의 정화와 산림 교육·치유 등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산림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방댐 시설, 산불 방지 및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 시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하멜이 중노동이라 여겼던 풀 뽑기보다도 힘이 드는 나무 심기와 풀베기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임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기 고

중소기업 가려운 곳 긁어 주는 '효자손 정책'

이용범
광주첨단산단경영자협회장

광주 북구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 강산의 변화를 두 번이나 함께 한 이곳은 이제 삶의 터전을 넘어 고향의 정을 느끼는 곳이 되었고 이웃 기업인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덧 입주 경영 선배 측에 든 필자는 나보다 이웃 기업인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첨단산단경영자협회 회장직까지 맡으면서 주변의 상황을 더 챙기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사항 건의를 위해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청에 출입하는 일이 잦아졌고, 필자를 포함한 기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 역시 많아졌다.

그 과정에서 크게 느낀 점이 있다.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각종 지원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야심찬 정책이라도 정작 기업인들의 요구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고 시원하게 긁어 줘야 하는 것이다.

여러 기업인들과 자리를 하다 보면 광주 북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회자되곤 한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라 대규모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업인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8년 7월 말 산업 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준다고 했다. 이전에 기업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분야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해당 부서와 닿기가 불편했고 생업에 쫓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지금은 민원을 경제종합지원센터로 접수하면 센터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로 이첩하고 처리 결과까지 신속하게 알려 준다. 직접 민원 관련 부서를 찾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야 했던 수고를 한순간에 덜어 준 것이고,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 준 시발점으로 기억된다.

2019년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지역 기업의 글로벌 판로를 개척을 지원하였고, 미래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활성화' '4차산업 융합 미니 클러스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기반 조성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사업들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역 기업인들은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성장지원단'과 '중소기업 인증 획득비 지원'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 등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은 기업 경영과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해외 바이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소'와 '산업단지 방역 도움 센터'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등은 지역 언론과 타 지역에서도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인공지능 창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기술 융합 제조 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 역시 기업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북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기업·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필자가 수렴한 여론은 대부분 '만족스럽다'였다. 기업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의적절한 지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인들은 자신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북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내실을 다지며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의 '효자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자부심을 느낀다.

필자에게는 2020년 8월 호우 피해 당시 새벽부터 산업단지 수해 현장 수습에 나선 문인 북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굳건한 신뢰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북구 공무원들의 발품이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社 說

새 정부 초대 내각 광주·전남 출신 중용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와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다음 주 이내에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 발표와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통상 3주 정도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 출범을 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조각(組閣)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내부 압축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 상당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부총리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윤 당선인은 특히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책임 총리·책임 장관제를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과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해 책임 내각을 구현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중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의 인재풀에 광주·전남 인사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과거 보수 정권 시절처럼 잘해야 한두 명이 구색 맞추기식으로 기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능력 우선'의 실용주의에 밀려 자칫 지역 인맥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과 실력을 함께 고려한 발탁이 이뤄져야 한다. 내각 인선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윤 당선인이 보다 큰 안목으로 국민 통합형 내각을 구성하기를 기대한다.

우크라 전장에 스미는 광주의 나눔과 연대

광주 의료진이 전쟁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인술로 보살피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사)아시아희망나무는 지난달 26일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에 의료진을 긴급 파견했다. 서정성 이사장과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이끄는 봉사단은 폴란드 바르샤바 엑스포에 마련된 우크라이나 난민촌과 국경 도시 프세미실을 오가며 진료 지원 및 의료 물품 전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현지 원정 진료에는 광주의 온정이 보태졌다. 조선대병원은 항생제, 종합감기약, 소염진통제 등 긴급 의료 물품을 지원했고, (재)씨젠의료재단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와 B형 간염 진단 키트를 후원했다.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진과 일부 의사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다.

광주의 연대 정신은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동포들도 보듬고 있다. 지역 사회의 모금과 지원 덕분에 피난길에 나선 고려인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거주해 온 고려인 동포 34명이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거쳐 무사히 국내에 들어와 광주에 안착했다. 어제도 고려인 동포 40여 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다.

폴란드 현지에 머물고 있는 광주 의료진이 전해 온 난민들의 처지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 난민촌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의 잇단 폭격으로 사상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붕괴돼 지원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4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는 연대의 손길이 절실하다. 광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는 온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광주 정신을 실천하고 인도주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無等鼓

디지털 금융 소외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첫 구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로 시작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쏜살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인이 살아갈 만한 나라가 아니다는 의미다. 노인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현명한 사람인데, 세상은 지혜로운 노인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살기 힘들다고 한탄한 것이다.

예이츠의 한탄은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며칠 전 70대 스페인 노인의 청원이 화제가 됐다. 은퇴한 비뇨기과 의사인 카를로스(78)가 전 세계 청원 웹사이트인 '체인지'에 "나는 바보가 아니라 늙은 것 뿐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파킨스병으로 수전증을 앓는 카를로스는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 창구를 통해서만 은행 업무를 봐 왔다. 그런데 거래 은행이 갑자기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보도록 방침을 바꾸자 노인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달라고 청원을 낸 것이다. 사연이 화제가 되자 스페인 정부와 은행은 노년층에 창구 접근 우선권을 부여하고 앱과 웹사이트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받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면 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하는데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ATM과 은행 점포는 7% 이상 줄고 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전국에서 문을 닫은 점포만 317곳에 달하고 광주·전남에서도 4년 동안 24개가 줄었다.

노인들은 금융상품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노인들의 80% 이상이 점포를 방문해 적금을 들다 보니 비대면 가입자에게 주는 우대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인 우대 상품도 없다. 청년들에겐 연 10%의 '청년 희망 적금'이 인기리에 판매 중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년 동안 월 7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인당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까지 준비 중이다. 정녕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걸까.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